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보도일시	2011. 12. 6(화) 10:30		
배포일시	2011. 12. 6(화) 09:30	담당부서	관계 부처 합동
담당과장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장 이종화(2150-7650)	담당자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 김지은 사무관(2150-7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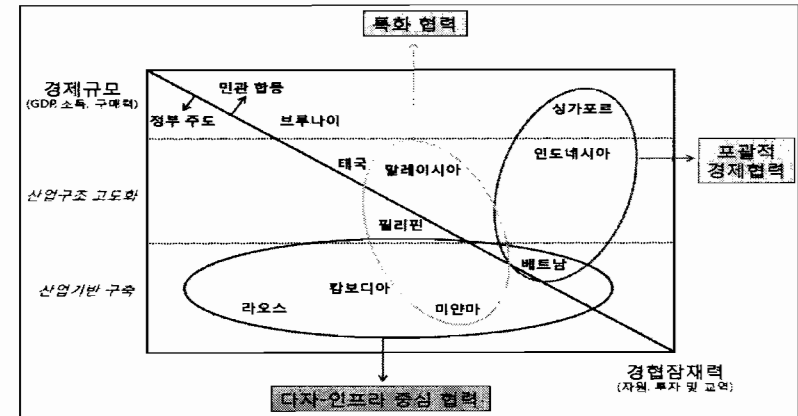
제목 : 동남아시아와의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전략 마련

【 추진 배경 】

-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풍부한 자원과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시아가 주목을 받고 있음
 - 동남아는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을 통해 주요 국가들과 협력채널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美·中·日 등 주요국들도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경쟁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도 '10년 ASEAN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등 동남아와의 경협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 한-동남아는 일찍부터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국가별로 정치·경제 구조와 소득 수준 등이 상이하므로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경협전략이 필요
 - 이에 정부는 더욱 내실있는 한-동남아 경협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맞춤형 경협전략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하였음

【 동남아 경협추진 전략 】

- 동남아는 산업화, 경제규모 및 소득 그리고 경협관계 및 잠재성 측면에서 국가별로 맞춤형 경협 전략을 추진할 계획임



<맞춤형 경제협력 체계도>

- 경협관계 및 잠재성 측면에서는 인니, 베트남이 포괄적 경협 대상국이며, 민정이양 이후 대외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미얀마, 이슬람산업이 발달한 말련 등은 특화협력 추진이 유망
 - * 미얀마는 '11.11월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문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외관계 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분야에서 잠재성이 높은 국가로 협력 초기단계에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필요
- 저소득국가인 라오스, 캄보디아 등은 개발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주도로 경협을 추진하되, 메콩강 유역 개발 참여와 같이 국제개발은행 등과 다자간 협력을 강화
- 인프라와 산업기반이 정비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되, 한-ASEAN FTA와 별도로 양자간 FTA 추진 등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

【 맞춤형 경험 추진 과제 】

① 중점 협력국과의 협력관계 확대

-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니 및 우리의 최대 ODA 지원국이며 투자처인 베트남과의 포괄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
 - 인니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KSP와 EDCF 지원 확대, 에너지 자원·인프라·농업 등의 메가프로젝트 추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CEPA) 절차 진행 및 한-인니 경제협력사무국을 통해 전방위적 경험 강화
 - 베트남 : 정상 외교 등 정부간 협의를 강화하고, 원전건설·에너지 자원·산업기술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지속 추진

② 개발지원 시스템 정비

- KSP :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을 통해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모듈화)하여 활용도를 제고
- EDCF : 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을 통합하여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보증제도 강화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여 민관협력(PPP)을 확대

③ 네트워크 확대 및 민간진출 지원

- 양자 관계는 물론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유학생을 통한 인적교류도 활성화
- 동남아 진출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하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민관합동 진출, EDCF와의 연계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적극 지원

【 주요 분야별 추진 과제 】

① 무역·투자 분야

- 한-ASEAN FTA 활용도 제고, 베트남·인니 등과의 양자 FTA 추진,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시장 확대 및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

② 건설·인프라 분야

- 메콩강 유역(GMS)개발 사업 등 동남아에서 진행중인 인프라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을 통해 민간 자금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유도
- 수재 관련 동남아 국가의 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 사업에 참여를 추진

* 금년 큰 홍수가 발생한 태국과 잦은 홍수 피해를 겪어온 메콩강 유역 국가들이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한 우리나라의治水 정책 및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③ 에너지·자원 분야

- 말련·베트남과 석유분야 협력, 인니·미얀마·베트남과 자원협력위를 통한 광물자원 프로젝트 발굴,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신규 협력 추진

④ 농업·임업 분야

- 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국제농업협력 사업 확대,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필리핀에 토지 확보를 추진, 인니와의 수산협력 MOU 추진
- '11.11월에 ASEAN 정상회담시 체결한 산림협정에 따른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 국내 설치 및 '12년 제1차 총회 개최 추진

⑤ 신성장 산업 분야

- T-DMB 등의 신기술 및 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한·ASEAN TELMIN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ICT 협력사업 추진(12~16),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 전자정부 수출을 위한 정부간 협력 강화, ICT 활용 및 사이버대학 설립 등 교육 정보화 경험과 기술을 전파
-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등을 통한 맞춤형 녹색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자카르타 강 복원 사업 등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

⑥ 금융·문화·의료 등 서비스 분야

- 한국거래소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수주한 증권·채권 매매시스템 구축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우리 금융기관들의 동남아 진출에 차질이 없도록 동남아 금융당국과 협력 강화
- 한국 문화원 개원, 베트남 수교 20주년 행사 등 계기별 문화 행사를 활용하여 한-동남아 문화협력 확대
- 동남아 지역의 의료수요 급증을 감안하여 국가별 보건의료협력 MOU를 체결하고 현지 의료인 초청 연수 및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인력 진출 등을 확대하여 연관 산업 진출을 견인
- 베트남과 필리핀에 기상업무 현대화 및 재해방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상 분야 협력도 강화

* 붙임 : 한·동남아시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대외경제장관회의
11-12-6 (보고안건)

韓 · 동남아시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2011. 12. 6

관계부처 합동

차례

I. 추진배경	1
II. 동남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4
III. 한-동남아시아 경제협력 방향	8
IV. 한-동남아시아 경제협력 활성화 과제	11

【 경제협력 기반 정비 】

1-① 맞춤형 경제협력 체계 구축	10
1-② 개발지원 시스템 효율화	14
1-③ 네트워크 강화 및 인적교류 확대	15
1-④ 민간진출 지원	17

【 분야별 협력 강화 】

2-① 무역/투자 분야	18
2-② 건설/인프라 분야	20
2-③ 에너지/자원 분야	22
2-④ 농업/임업 분야	24
2-⑤ 신성장 산업 분야	26
2-⑥ 서비스업 분야	29

VI. 향후계획	32
----------------	----

<별 첨> 세부이행과제	33
--------------------	----

I. 추진 배경

- 동남아는 풍부한 자원*과 거대 내수시장** 등 잠재력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중국을 보완·대체할 유망지역으로 부상
 - * 원유(150억 배럴), 천연가스(262조 평방피트), 고무(세계 1위), 목재(세계 1위) 등
 - ** ASEAN 인구 5억8천만, GDP 1조8,654억달러(2010년 기준)
-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03년), EU형 경제공동체 추진**을 통해 거대시장으로 세계경제에서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 *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6개국은 '10년에 관세 철폐, 후발 4개국은 '15년까지 관세 철폐 합의
 - ** '08년 아세안 연차총회에서 아세안을 '15년까지 단일 시장-단일 생산기반(공동시장) 형태로 발전토록 하는데 합의
- 금융위기 이후 美, 日, EU 등 선진국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신흥국 및 아시아 경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 경제공동체**, 역내 금융협력*** 등 경제협력 논의의 중심체로 역할
 - * 자유무역협정: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인도와 체결
 - ** ASEAN+3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동아시아 경제공동체(EAEC) 논의 진행
 - *** 아세안 통화기금(AMF), 아시아 공동통화(ACU) 등 역내 금융협력 논의 진행중
- '10년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으로 동남아와 한국은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
 - '11.11월 ASEAN+3 정상회담 및 EAS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한-동남아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를 도출

참고 동남아시아 경제 현황

□ 동남아는 인도차이나반도와 그 남동쪽에 분포하는 말레이 제도에 위치하는 국가들로 ASEAN* 회원국과 거의 일치

* '67년 인니, 말련,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 'ASEAN 선언'을 채택, 지역협력기구로서 ASEAN 설립

○ '80년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추진한 ASEAN*와 '80년대 말 이후 체제전환·개혁개방을 통해 유망시장으로 부상한 신규 ASEAN 가입국(CLMV)**으로 구성

* 인니, 말련,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84 ASEAN 가입)

** 베트남('95 가입), 라오스·미얀마('97), 캄보디아('99)

□ 아시아 외환위기('97-98) 영향을 극복하고, 2000년대 성공적인 경제회복을 달성하면서 신흥시장으로 부상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09년 성장률이 하락하였으나, '10년 7.9%로 빠른 회복세를 보임

* 경제성장률(ADB, %) : ('01) 2.6 → ('07) 6.7 → ('08) 4.3 → ('09) 1.3 → ('10) 7.9

○ 선발국가인 말련, 싱가포르, 태국 등은 전자, 기계, 전기, 반도체, 석유화학 등 공산품 수출이 호조

- 후발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섬유제품, 제화류 등 수출호조로 연평균 7%대 경제성장 달성

* 주요 산업: 베트남(저비용 제조업), 필리핀(전자, 콜센터 등), 태국(자동차 조립), 말련(전자, 반도체), 싱가포르(생명공학, 금융) 등

□ 자원부국인 브루나이, 인니, 말련, 베트남 등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자재 수출도 증가

< 주요 자원 >

국 가 명	주요 자원	국 가 명	주요 자원
브루나이	원유, 천연가스	태국	고무, 주석, 텅스텐
인도네시아	석유, 가스, 주석, 목재	캄보디아	고무, 원목, 인광석
말레이시아	석유, 가스, 고무	라오스	철광석, 석탄, 주석
필리핀	동, 금, 니켈, 석유, 목재	미얀마	석유, 가스, 납, 아연
싱가포르	-	베트남	탄, 석유, 철광석

* ADB, 각국 정부 홈페이지, 한국 수출입 은행

□ 다만, 선발 6개국과 후발 4개국(CLMV)간의 경제적 격차와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전망

○ 선발국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1인당 GDP가 3만불 수준이며, 말련, 태국, 인니는 중소득 국가

○ 후발국들은 경제정책이 수출 주도·자원 개발형 경제 등에 맞춰져 있으나, 경제·사회 인프라의 미비가 정책추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 1인당 GDP가 1000불 이하로 빈곤인구가 상당

* '10년 국가별 1인당 GDP(\$,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11.9)) : 싱가포르(43,117)-브루나이(29,675)-말련(8,423)-태국(4,992)-인니(2,974)-필리핀(2,123)-베트남(1,174)-라오스(1,004)-캄보디아(814)-미얀마(702)

II. 동남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경제협력 현황

① 교역·투자 및 건설

○ **[교역]** 우리의 2대 교역대상지역('10년 말 기준) 으로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회복세

- 지속적으로 우리측의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10년 對ASEAN 무역수지는 91억 달러로 흑자 규모가 확대

* 교역량(십억불): ('01) 32.3 → ('08) 90.2 → ('09) 75.0 → ('10) 97.3
수 지 (십억불): ('01) 0.5 → ('08) 8.4 → ('09) 6.9 → ('10) 9.1

- 국가별 교역은 싱가포르-인도네시아-베트남-말레이시아 順

○ **[투자]** 동남아는 우리나라의 최초 해외투자가 시작된 지역으로, 중국·미국·EU에 이어 4대 투자지역('10년말 누적)으로 부상

-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점증하는 차이나리스크의 보완지로 베트남, 인니, 캄보디아 등이 부각되면서 투자 급증

- 주요 투자 대상은 석유, 천연가스, 고무, 목재 등 주요 자원 및 제조업 등 생산기반

- 국가별 투자 누적액은 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 順

< 한-ASEAN 투자현황 > (억불)

경 제 지 표	2006	2007	2008	2009	2010
對ASEAN 투자	13	31	36	20	42

*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은행

○ **[건설]** 우리나라는 '11.11월 현재 동남아에서 100억불을 수주하여 전체 건설 수주 중 21.6%를 차지

- 경제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교통 인프라 중심의 사업참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플랜트 사업수주 증가* 추세

* '08년 이후 '11.11월까지 동남아 수주 329억불 중 플랜트 분야 39.2%(129억불)

<우리 업체 건설 수주 추이 > (단위: 백만불)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11월
ASEAN (A)	1,026	1,283	2,764	9,122	9,105	5,909	8,279	10,003
전체 (B)	7,498	10,859	16,468	39,788	47,640	49,148	71,579	46,380
ASEAN 비중 (A/B, %)	13.7	11.8	16.8	22.9	19.1	12.0	11.6	21.6

* 출처: 해외건설협회

② 개발 원조

○ **[개발협력]** 동남아시아는 최근 지원이 크게 늘어난 이라크 다음으로 우리나라 최대 무상원조 지역

- (EDCF) '87~'11.10월말 6개국 98개 사업*에 27억불을 지원하여 전체 EDCF 지원액의 41.5%를 차지

* 베트남, 인니,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6개국에 지원 (중점지원국: 베, 인, 필, 캄, 라/ 일반지원국: 미)

- (KSP) '04~'10년간 인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4개국 74개 과제 컨설팅을 지원

○ **[경제협력 채널]** 현재 42개*의 정부간 협의체 운영중

* 교과(4), 외교(12), 행안(2), 지경(10), 국토(3), 농림(1), 환경(3), 산림(1), 문화(1), 방사청(5)

- 개최실적이 적거나 최근에 신설된 협의체가 많은 편이므로 지속적인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

2. 경제협력 평가

□ 동남아의 경제성장에 따른 신흥시장 부상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와의 교역·투자가 증가되고 정부간 협력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한-동남아 경협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

□ 개발원조 측면에서는 프로그램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자립 역량 증진에 초점

○ KSP, EDCF 등의 프로그램간 연계성 강화로 개발원조 효과성 제고

- 물적 지원과 아울러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자생적 발전 역량을 증진하는데 주력

□ 또한 한류 등을 통해 형성된 정서적·문화적 공감대를 토대로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경제협력' 추진이 용이

⇒ 정부의 경협연계 강화 및 동남아시아의 경협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경협을 통해 한-동남아 협력 심화·발전 유도

참고

주요국의 ASEAN 협력 증진 현황

1. 중국

- 동남아에 대한 원조를 크게 확대하면서 남중국과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을 연계한 인프라 건설사업에 대규모 투·융자 실시
- '02~'07년 148억불 원조 지원, 30만톤 규모 쌀 무상원조 발표('09.4)
- 중·ASEAN 인프라기금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제공, 150억 달러 저리 신용 차관 공여

2.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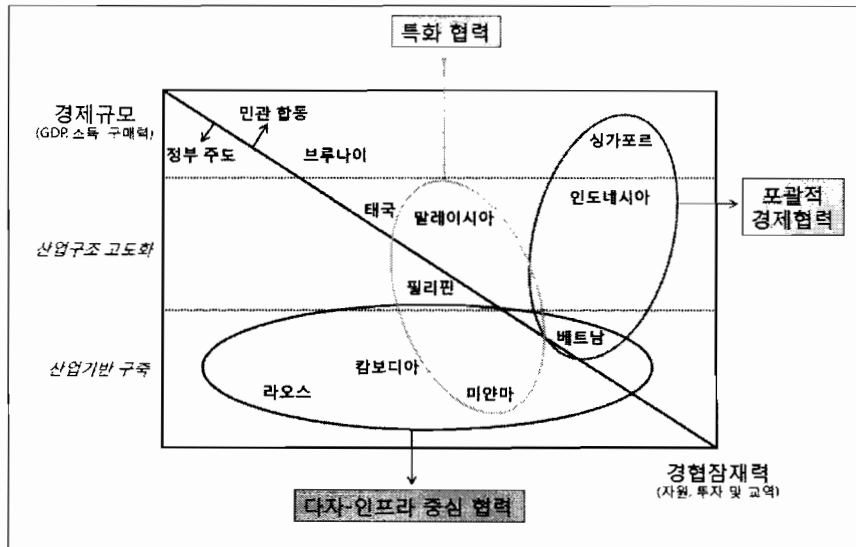
- 'ASIA-Wide 成長 構想' (일명 '아소 구상') 추진
 - ASEAN 사무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종합개발계획' 수립, ODA·공공자금·민간자금 등의 지원 추진 계획
 - ASEAN, 인도 등을 중심으로 5년간 70조엔의 인프라 수요를 예상하고, 10조엔 규모의 투자 구상에 착수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등 주요 동남아 국가와 개별 EPA를 체결
- 「일·메콩정상회의」를 통해 개발격차 시정 등을 포함한 「도쿄선언」 발표하는 등 동남아 지역과의 관계 확대

Ⅲ. 한·동남아시아 경제협력 방향

1. 기본방향

- 동남아는 개발단계가 상이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 수립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경제발전 정도 또는 경제협력 잠재성이 높은 국가군
 -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의 메콩강 유역국은 경제발전 수준이 낮고 개발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군
 -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부문별 특화를 통한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은 지역

<맞춤형 경제협력 체계도>



2. 맞춤형 전략 체계

① 포괄적 협력 강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 양자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된 인니, 베트남은 기 구축된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 수립
- 양자간 FTA 체결 또는 확대, 정상회담 및 협의체·문화행사 등을 통한 양자 관계 강화
- * '12년 한-베트남 수교 20주년 행사 예정

② 다자간 협력 및 인프라 중심 협력 추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 대해서는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협력 중심으로 관계 확대
- 특히 메콩강 유역 개발계획(GMS) 중심으로 교통 및 무역 원활화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다자적 차원에서 접근

③ 특화 협력: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 이슬람산업(말), 자원 개발(미), 농업(필) 등 국가별로 특화된 협력 추진이 가능

3. 민간-정부 역할 분담

- 잠재성이 크지만 사회·경제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의 경우 정부 주도, 협력 기반이 확보된 국가**의 경우 민관합동 진출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참고

국가별 특화 협력 예시

1. 미얀마

- 최근의 민정이양 이후 '11.11월말 클린턴 美국무장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대외관계 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잠재적 경제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방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관계 구축 필요
 - 천연가스, 광산개발과 같은 에너지 자원개발은 정부 대 정부차원에서 접근
 - 미얀마는 5천만명 이상의 인구, 풍부한 자원 등의 성장잠재력 보유 국가나, 국제사회의 제재와 정치적 혼란으로 미개발된 국가

2. 말레이시아

-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슬람국가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이슬람 시장 진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
 - 2억 7천만불에 달하는 글로벌 시장인 할랄(HALAL)산업*과 관련하여 말련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
 -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계율에 따라 관리되는 식음료, 의약, 소비재, 금융 등의 시장
 - 말련은 적극적으로 이슬람 금융을 육성하여 현재 80%에 가까운 이슬람 채권(수쿵)이 말련에서 발행되는 등 이슬람 금융의 중심 국가로 부상

3. 필리핀

- 심한 빈부격차와 지역불균형, 낮은 농업생산성, 과도한 재정 적자와 비효율적 공공부문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
 - 현재 추진중인 농업중심 복합산업단지(MIC)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필 경제협력 활성화 동력 마련

IV. 한-동남아시아 경제협력 활성화 과제

1 경제협력 기반 정비

1.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 동남아는 개발단계가 상이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 수립
- ① [중점 협력국과의 협력 관계 심화·확대] 양호한 경제성장과 경험 잠재성이 높은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심화·확대 하고 양자 협력 관계를 강화
 - [인도네시아] 높은 성장잠재력, ASEAN에서의 주도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전방위적 경제협력 전략 수립이 필요
 - 양국 정상 교류, 경제협력위원회(장관급), 한-인니 경제협력 실무TF* 등으로 구축된 양자협력 관계 강화
 -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자원, 건설·인프라, 농림수산, 환경, 방산, 정책개발·금융 등 8개 분과(1차 '11.5월, 2차 '11.10월)
 - 인니의 경제개발 수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조업·인프라·에너지자원·농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 및 협력 확대
 - 인니는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Masterplan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2011-2025")을 수립하여 6개의 경제발전 회랑을 구축하고, 각 회랑에 제조업 전략, 에너지 로드맵, 농업 발전 등을 통합하여 총체적인 지역개발을 추진

- 한-인니 경제협력 사무국*을 통한 인니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이행 구체화 전략 수립 지원 및 협력 프로젝트 발굴, 우리 기업의 참여 지원
 - * '11.11.17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사무국 운영지침 서명(지경부 장관-인니 경제조정부 장관), '12년초 정식 발족 예정
 - ** 지경부 과장급 1명 기파견, 관계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등 추가 파견 추진
- CNG 패키지 협력사업*, 순다대교**, 농산업복합단지(MIC)*** 등 경험 상징 메가프로젝트 추진
 - * 가스전 개발과 운송·저장설비 투자, CNG 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연계한 종합 프로젝트
 - **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을 연결하는 약 31km의 해상교량 건설사업
 - *** 농업을 주축으로 연관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 산업·에너지를 연계한 종합단지 조성
- '11년 중점지원국으로 선정된 인니에 대하여 KSP 포괄 컨설팅 및 EDCF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적극 지원
 - * 對 인니 EDCF 지원 현황: '87~'11.10월 19개 사업 546백만불을 지원(EDCF지원 대상 46개국 중 2위)
- '11년 인니에 대한 유무상 통합 CPS 수립 계기로 현지원 후보사업군의 양적·질적 제고를 위해 추가 사업 발굴('12년초)
 - * '10년부터 국별지원전략을 유·무상 통합 전략으로 수립중
- 한-인니 양자간 자유무역협정(CEPA) 타당성 공동연구 완료에 따른 국내 절차 진행
 - * 한-인니 정상회담('11.11.17)에서 인니와의 CEPA 국내절차 개시 합의

- [베트남] 우리나라의 최대 ODA 지원국이자 투자처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 '09년 기 구축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를 위하여 정상간 교류 지속 추진**
 - * '01.8월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이후 '09.10월 VIP 방베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 ** 11.11월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12.3월 핵안보정상회의시 베트남 총리 방한 계기 활용
 - 정부간 협의채널*을 통해 원전건설·산업기술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한국 기업의 對베 투자 및 교역 지원
 - * 한-베 장관급 공동위원회: '11.7월(1차), '11.10월(2차), '12.2월(3차 예정)
 - ** '11.11월 베트남 주석 방한시 베트남 원전건설을 위한 협력 확인
- ② [개발격차 해소 지원] 경제개발 후발국가인 CLMV 등에 대해서는 개발격차 해소와 빈곤해소를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지원에 역점
 - 스스로 자국의 여건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KSP를 통한 정책역량 강화 지원
 - * '12년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4개국 대상으로 KSP 정책자문사업 실시 예정
 - EDCF 지원 확대 및 사업범위 확장을 통해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하고 우리의 경제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전파

2. 개발지원 시스템 효율화

- ① **[KSP] 경제정책전반에 대해 포괄컨설팅을 실시하는 중점 지원국 제도**를 통해 캄보디아, 인니 등에 대해 정책자문 실시
- * 중점지원국: 캄보디아, 인니/ 일반지원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KSP 사업을 연계한 **공동컨설팅**을 실시하여 KSP 사업을 **삼각협력** 형태로 발전
 - * ADB와 공동으로 최초의 공동컨설팅 사업인 “한-태국 인프라 비교 분석 사업” 실시중
 - 우리 발전경험을 **구체적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모듈화사업)* 하여 정책자문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 * 모듈화 계획 : ('10년) 20개 → ('11년) 40개 → ('12년) 40개
- ② **[EDCF] 중점지원국을 대상으로 양허성 차관과 무상원조를 통합한 국별 지원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
- * '11.8월 베트남, '11년 하반기 인니, 캄보디아 등에 대해 신규착수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프로그램차관 도입** 등을 통해 EDCF 협력방식을 다양화
 - * 개별 프로젝트가 아닌 개도국의 분야별·주제별 개발계획을 공여국간 협력을 통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원조방식
 - 위험 최소화를 위해 **보증 제도를 강화하는 등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를 통해 **민관협력(PPP) 확대**

⇒ EDCF와 KSP를 활용하여 국가장기비전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동남아 국가의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

3. 네트워크 및 인적교류 확대

- ① **[협의 채널]** 주요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협력채널의 통합·조정을 통한 **효율화** 추진
- 양자간 협력 및 국제기구(ADB)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기구(GMS 등)와의 연계도 검토
 - 동남아 국가의 민간 부문과 협력 채널을 구축·활용함으로써 기업 진출 확대에 기여
 - 한-인니 경제협력 실무TF(1차 '11.5월, 2차 '11.10월)의 과제 발굴 및 지속 추진
- ② **[역내 금융협력] 역내경제감시기구(AMRO)*('11.5월 설립)를 통해 아시아 금융안전망인 CMI다자화 체제** 안착** 지원
-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 ASEAN+3 회원국의 거시경제 동향을 감시·분석하여 CMIM의 자금지원 관련 의사결정을 보좌
 - ** Chiang Mai Initiative 다자화 : ASEAN+3 역내 상호자금지원체계(총 1,200억불 규모, '10.3월 발효)
 - ASEAN+3 국가의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역내 자본시장 발달을 위하여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에 대한 논의 지속
 - * '03년 ABMI 논의 시작 → '10.5월 역내 신용보증기구(CGIF) 출범
 - 포괄범위에 ‘자본시장’을 포함하는 ‘아시아자본시장 발전방안(ACMI)*’ 및 **역내증권결제기구(RSI)**** 설립도 논의
 - * ASEAN+3 Capital Market Initiative
 - **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ASEAN+3 역내 국경간 증권거래시 증권의 예탁·결제를 담당하는 기관

③ [메콩강 유역과의 네트워크 강화] 동남아 경제통합의 일환

으로 추진되고 있는 메콩강* 유역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 메콩강은 4,181km(세계 12위), 79.5만km²(한반도 면적의 4배)로 중·태국·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를 관통하는 동남아 최대의 강

** '92년부터 ADB 주도로 메콩강 유역국(CLMV, 태, 중(운남성))이 참여하여 역내 빈곤 감축·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공동 개발 진행중

- 메콩강 유역국의 수요가 높은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수자원 개발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천연자원 개발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 교통인프라 구축 및 수자원 개발에 총 1,067백만불 既지원(EDCF)

- 기후변화, 환경 관련 협력 수요 증대를 감안하여 녹색 ODA, MDB 협조융자,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KSP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추진

-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 및 실무협의를 통하여 협력사업 발굴,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검토

* 美·日の 경우 정상회의 등 GMS와의 고위급 경제협력 협의체 운영중

④ [인적교류 확대] 외국인 유학생 활용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외국인 유학생 DB 구축 등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

- '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제안한 연수생 초청(7년간 7천명)을 지속 실시

- 제도개선을 통한 정부초청장학생 사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 추진

- 동남아 지역 유학생 등의 프로젝트 수행시 자국에 대한 연구를 유도하고 DB화

4. 민간진출 지원

① [수주지원] '해외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여건 개선방안'(11.8월)'에 따라 동남아 지역 진출 기업의 수주를 지원

* 수은·KSURE의 중장기 프로젝트 지원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수은의 대출연장 인수를 통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촉진하며, 해외공적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

② [민관협력 확대] 민-관 연계를 통하여 기업 진출을 지원

-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민간투자제도(PPP)*를 적극 활용토록 EDCF와의 연계**, PPP 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 노력 확대

* 동남아 국가들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재원 조달 능력이 부족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조달을 적극 추진중

** 민자사업 수행시 해당국 정부가 사업시행법인(SPC)에 출자금을 제공할 경우 이를 EDCF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연계 추진

- 민간 기업 단독의 해외진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간 사전 협의후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진출도 추진

2 분야별 협력 강화

1. 무역·투자

① **[한-ASEAN FTA 활용도 제고]** '07년 상품협정 발효 이래 ASEAN과 교역규모가 약 36% 증가하였으나, 우리 수출 차원의 활용은 낮은 수준**

* 한-ASEAN 교역규모 : ('07) 719억불 → ('10) 973억불

** 활용률: ASEAN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시 ('07) 8.8% → ('10) 68.1%
우리나라에서 ASEAN 수출시 ('07) 1.3% → ('10) 29%

○ 한-ASEAN FTA 이행위원회에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활용률 제고 방안 협의

- 상품 양허상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한 검토 수행 ('12년부터)

② **[양자 FTA 추진]** 한-ASEAN FTA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 기 체결 국가 : 싱가포르('06.3월)

** 일본의 경우 동남아 국가들과 양자간 EPA를 체결하여 특화된 경제협력 관계 형성(태국, 말련, 인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 양자 FTA 타당성 공동연구가 완료된 베트남, 인니와의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

- 현재 공동연구 진행중인 말련과는 공동연구 완료후 FTA 협상 개시여부 검토

○ 필요할 경우 양자간 FTA 체결 확대 검토

③ **[수출시장 확대]** 원전, 방산 등 새로운 수출시장 확대 추진

○ **[원전]** 원전 수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단기적으로는 협력기반 구축에 집중

- 원자력안전규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종합 및 개별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

○ **[방산]** 합리적 품질과 상생의 전략을 통한 국제 방산 협력 확대 추진

④ **[중소기업 지원]** 공동 세미나, 투자설명회 개최, 무역촉진단 파견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모색

○ 베트남과 친환경 분야 기술교류 세미나 및 기술 상담회 ('11.7월), 인니와 투자환경 설명회, 글로벌 파트너십 상담회, 기술이전설명회 등 개최('11.11월)

○ 동남아 지역 한인 컨설팅업체를 활용하여 마케팅 서비스 제공하는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진행

* 현지 전문가(회사)를 통한 시장정보·마케팅 전략수립, 바이어 알선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11년 베트남, 말련 등 7 개국 16 개사)

⑤ **[진출기업 지원]**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과 해당국가 정부 (담당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영애로 해소 지원

○ 주요 진출국가에 대해 Korea Business Dialogue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현지 정부와 한국기업 대화채널 확보

* 예) 인니 반둥에서 제1차 Korea Business Dialogue 개최('11.11.30)

○ 코리아 데스크*, 한-인니 공동 그린비즈니스센터(GBC)** 등 현지주체 기관을 통한 현지 진출기업 활동 및 경영애로 지원

* 인허가 등 중소기업의 설립·활동 지원(인니 '08년, 말련 '10년 설치)

** GBC('11.7월): 사무공간 제공·컨설팅을 통한 진출기업 정착 지원

2. 건설·인프라

① **[인프라 개발사업 참여 확대]** 최근 동남아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 GMS, 인니-말련-태국 성장삼각지대(IMT-GT),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인니 경제개발회랑 사업 등

○ 일본과 중국 등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컨소시엄**으로 참가하거나 **공동진출**을 모색

- 종전 민간기업 위주의 수주형 사업방식에서 **민관 공동협력방식**으로 확대 추진

○ 인니의 주요 **인프라망**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

* (교통) 남수마트라 철도·항만, 하타 공항철도, 자보타벡 순환철도, (수자원) 발리 상수도 건설

② **[재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재해관리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

○ 4대강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쌓은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 경험을 활용하여 동남아 국가의 **재해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 추진

* 최근 홍수피해를 크게 입은 태국은 홍수 관련 재건을 위하여 향후 5년간 30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일본, 네덜란드, 이스라엘, 미국, 중국 등의 각 나라가 참여를 위해 각축 중

③ **[수주 지원체계 강화]** 정부 차원의 협력 확대 및 수주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건설·인프라 시장 선점 지원**

○ **고위급 인사 상호 방문** 및 **공동위 등 행사**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확대

- 주요 수주 대상국과 건설/플랜트 협력 **MOU 체결**

* 기구축 MOU: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건설 MOU

○ **글로벌인프라펀드, 시장개척자금 보조*** 등을 통해 프로젝트 선점 및 우리 기업의 안정적 진출 지원

* 건설 기업의 수주활동에 필요한 현지 조사비, 발주처 초청비용 등 지원

- **글로벌인프라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의 투자 활성화 유도

* '09~'13년간 2조원 규모(정부 400억원, 공공기관 1,600억원, 민간 1.8조원)로 조성할 계획이며, '11.11월 현재 4,000억원 조성

○ 싱가포르 정부와 체결한 **한-싱 플랜트 금융협력 MOU**를 토대로 **프로젝트 단위의 협력 성공모델 발굴**

* '10.9.7 지경부와 싱가포르 국제기업청은 제3국 공동진출, 프로젝트 단위의 플랜트·금융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는 MOU 체결

○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등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기회 확대 및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등을 통한 진출기업 지원 지속

*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관련 기업과 해외 발주를 연결하는 행사 ('08년~)

3. 에너지·자원

① **[협력체계 구축]** 우리나라의 자본력·기술력을 동남아 국가의 풍부한 자원과 결합하여 동반협력 관계 구축

- 정상자원외교, 고위급 외교 및 실무급 자원협력 등 국가별 맞춤형 자원외교 추진

* 미얀마 신정부는 육상광구를 해외기업에 개방하는 등 기존 자원 개발 전략을 변경하는바 자원외교 측면에서 협력을 추진할 필요

-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에 EDCF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

② **[Package Deal]**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을 연계하는 package deal형 진출을 확대

-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된 도로·항만 등 주변 인프라 조성 등 측면 지원을 강화*

* 사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광물자원공사, 대우 인터내셔널 등 투자)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주변도로 개보수사업 지원

③ **[PPP 확대]** PPP방식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개도국 발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직·간접 지원도 강화

- 특수목적회사(SPC)앞 대출 또는 출자, 개도국 정부의 건설 보조금, 민자사업에 부수되는 기반시설 등을 지원

* EDCF는 사업의 현금흐름을 보강하여 민간투자를 성사시키는 역할

** (사례) 라오스 세피안 수력발전사업(총사업비 9.2억불)을 위한 SPC에 라오스정부(66백만불, EDCF 지원) 및 우리기업(SK건설, 서부발전)이 참여

④ **[자원별 맞춤형 진출 방안]** 석유·천연가스*, 주요 광물** 매장국가 및 자원별 특성에 맞는 진출 방안 모색

* 브루나이, 말련, 타이, 베트남/ **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 **[석유]** 동남아 자원부국 석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 말련 국영석유사(PETRONAS)와의 상호 관심지역 공동 협력 추진, 베트남의 PETROVIETNAM과 베트남 및 제3국에서의 공동 참여 기회 모색

* 석유공사-PETRONAS Carigali간 석유개발 협력 MOU 체결('10.12월)
석유공사-PETROVIETNAM간 E&P 사업 공동 협력 MOU 체결('10.12월)

- **[광물자원]** 인니, 미얀마, 베트남 등과 자원협력위를 통해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협의

- 고위급 자원외교를 통하여 실수요 민간기업의 자원개발과 개발인프라를 연계한 Value chain 형태의 구체적인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확보

* 라오스(철광 : 서동), 미얀마(주석광 : 넥스지오), 캄보디아(동광 : 미래환경), 인니(니켈 : 경동)

-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협력 가능성 검토

- 동남아는 바이오, 태양광, 풍력 등이 풍부하여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 적합하므로 협력 및 투자진출 가능성이 상당

4. 농어업 · 임업

① [농어업 협력기반 구축] 동남아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업분야의 협력을 확대

- 현재 캄보디아, 베트남 등과 추진 중인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라오스, 인니 등으로 확대(6개국 44억원)

* 농업·농촌개발 관련 종사자 국내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기술 전수, 소규모 시설 설치 및 기자재 지원 등

- 해외농업기술센터(KOPIA)*를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및 해외농업개발기업 기술 지원

*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총15개 센터 중 베트남·필리핀·미얀마·캄보디아·태국 등에 설치

- 수산물 위생약정 국가간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분석 기법 교육 및 교류를 위한 전문가교류 추진

* 위생약정 체결현황 : 베트남('00), 인니('05), 태국('06)

** 등록공장 점검 또는 실무회의시 전문가교류협의 및 국내교육기관 지정('12년) → 전문가 교류 및 연수 실시('13년~)

- 인도네시아 수산부와 수산물 가공·유통 등을 포함한 미래 지향적인 수산협력*을 위한 MOU체결 추진

* 한-인니 수산부장관 회담('11.11.23, 자카르타)시 합의

② [농업분야 진출 지원] 우리 기업의 해외농업 개발 및 농산물 저장·가공·유통 등 전·후방 연관산업 진출 지원

-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하여 사업비 융자 지원, 해외농업 정보제공, 해외농업 인력양성 등 지원

- 해외농업개발의 주요 애로 사항인 대규모 토지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정부간 협력을 통해 지원

- 필리핀 정부와의 MIC 사업 협력 MOU 체결('11.11)에 따라 미사미스 오리엔탈 지역에 해외농업개발 추진 중

- 한-인니 경협 TF 2차 회의('11.10월)를 계기로 MIC 사업 타당성 조사 * 사전 현장조사(연내) → 타당성조사('12년)

④ [산림협력] 기후변화 대응관련 선·개도국간 가교역할의 실천적 수단으로서 산림분야 국제기구* 설립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09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09.6)시 우리나라가 설립을 제안

- '11.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체결된 산림협정에 따라 사무국 국내 설치 및 제1차 총회개최('12년)

- 동남아 국가의 산림협력 관련 수요파악 및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AFoCO 협력사업추진

* ('11) 아세안 9개국 → ('12) 아세안 및 주변 아시아국가로 확대

- 양자간 산림협력과 연계한 산림자원 선점과 개발 투자 확대

- 한-인니 Kampar Peatland 지역 REDD+ 협력사업 추진(1,400ha)

* REDD+ : 개도국에서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억제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조림과 산림복원을 통한 산림탄소 축적 증진 활동

- 해외조림과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선진기지 구축으로 임목 생산성이 높은 동남아 산림투자 확대

* 인니, 캄보디아에서 확보한 40만ha 조림대상지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필요

5. 신성장 산업

가. ICT

① [통신] 우리나라 개최 ICT 관련 국제회의*에 동남아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 * 방송통신장관회의,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APT 회의('11), ITU 전권위원회('14) 등

○ '11.1월 한-ASEAN TELMIN*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한-ASEAN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ICT 협력사업」 추진('12~'16년)

- * 한-아세안 TELMIN: 우리나라와 ASEAN의 ICT 분야의 협력체

- T-DMB* 등의 신기술 및 서비스 활성화 지원, 통신정책 자문 및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IT 역량 배양 지원

- * T-DMB(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우리나라가 세계 표준으로 제안하고 채택된 모바일방송기술

② [전자정부] 정부간 협력을 확대하여 Government to Government 방식의 전자정부 수출 확대

- * 베트남 정부데이터센터(1억불), 인니 재정정보시스템(4,300만불, 인니 특허 정보시스템(3,300만불), 베트남 전자조달(300만불)(전자정부 수출액의 46%)

○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분야별 IT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추진('12~)

- * 라오스는 세계은행으로부터 국내 신문고 시스템의 기술적용을 요청받아 협력을 추진 중으로 국제입찰시 국내기업 수주에 유리

○ 필리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MOU* 추진('12~)

- 베트남 IT협력센터(하노이, '11.5월)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공동연구 및 타당성 조사 등 공동협력 사업 추진

○ 미얀마, 라오스에 대하여 전자통관(UNI-PASS)* 시스템의 수출 가능성 타진

- * 수출입 통관절차를 종이서류 없이 처리하는 한국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10년까지 중앙아, 중남미 6개국(6,212만달러)에 수출

○ 유·무상 원조를 활용한 전자정부 초기 시장개척, 국제 입찰 수주를 위한 우회 지원

- * 인니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정보접근센터 구축 지원
- ** 전자정부 등 IT담당 공무원 초청연수 10개국 1,090명 실시

③ [e-Learning] 우리의 교육정보화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하여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첨단교육서비스 해외진출 기반 마련

○ 교육정보화 MOU 체결 및 PC 지원, 교원초청연수,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 교육정보화 컨설팅 실시

- *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상 PC지원 및 교원초청연수 매년 실시('05~)

- ** 인니와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 MOU 체결('11.8월) 및 시범교실 완공('11.12월), 캄보디아 IIC 기술대학교 이러닝솔루션 구축 컨설팅('11.10월~)

○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한 CLMV 인적·물적 기반 확보 지원, '12년 CLMV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학점교류 추진

- * 캄, 라, 미, 베 대상 e-Learning 센터 구축, e-Learning 운영자문, 전문가 초청 연수, LMS 개발 등 기자재 보급과 인력 양성('10~'12.8월)

나. 환경/기후변화

- ① **[맞춤형 녹색 개발협력 추진]** 개별 국가의 녹색성장 계획 및 ADB의 국가개발 전략 등을 토대로 **녹색개발 협력수요**를 분석하여 **맞춤형 녹색 개발협력 추진**
-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을 통해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등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에 대해 중점 지원**
 - * 동아시아 개도국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양립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실시('08.7월 G8 확대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 '12년까지 총 2억불 조성)
 - ② **[진출기업 지원]** 환경 협력사업 발굴 및 국내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추진**
 - 상하수도 등 국가별 중점 환경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및 타당성 조사 지원**
 - 현지 기업 수주 지원을 위한 **환경산업 협력센터 기능 강화**
 - '05년 개설된 한-베트남 센터(하노이)의 전문인력 보강 (2인 → 4인), 한-인니 센터 개소('11.12월)
 - 한-인니 경제협력 **환경분과 활성화** 및 “자카르타 강 복원 사업” 착수('12년 시범사업 및 추진계획 수립 등)
 - '12년 한-ASEAN **그린비즈니스 파트너십 포럼*** 개최를 통해 국내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체계 구축 지원
 - * 동남아 지역 10개국 20여명 고위 환경정책 의사 결정권자 및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수 환경기업 및 기술소개

6 서비스업

가. 금융

- ① **[금융 시스템 수출] KRX(한국 거래소)* 국제화**를 통해 역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증권업 등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 * 한-라오스 합작 증권거래소 출범('10.10월), 캄보디아와 '12년초 개장 추진
 - **말련 거래소의 「채권매매·감리시스템」의 최초 수주 및 성공적인 가동('08.4월) 후 추가 프로젝트 다수 수주***
 - * 말련 파생상품 청산 결제 시스템 등(178억원), 베트남 차세대 시스템(약 250억원), 필리핀 거래소 시장 감시 시스템 등
 - **베트남에 대해서는 호치민거래소, 하노이거래소, 예탁원 등 전체 증권시장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 ② **[금융기관 진출 지원]** 동남아시아 금융당국과 **MOU 체결을 확대하는 등** 현지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 * 기구축 MOU(5): 베트남 중앙은행, 베트남 증권위원회, 말련 증권위원회, 싱가포르 중앙은행, 캄보디아 재정경제부
 - 현지화 지원 및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파악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 검토**

나. 고용노동

- 산업 발전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분야 지원 강화**
- * 'ODA 선진화 방안'('10.10월)에 따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베트남, 필리핀 등을 시범국가로 직업훈련 분야 모델개발 중('11~'13)
 - **한-ILO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직업능력, 산업안전보건, 산재보험 분야 등 협력강화**

다. 문화

- 한국문화원 개원, 수교기념 등 각종 계기별 문화행사를 활용하는 등 한국문화 전파 및 문화 협력 확대
 - 한국문화원*을 통한 동남아시아 지역 문화교류 활성화
 - * '06년 주베트남, '11년 주필리핀, 주인니 한국문화원 개원, '12년 이후 태국·싱가포르 개원 계획
 - 제2회 「한-아세안 문화예술 포럼」 개최를 통해 문화예술 인적 교류의 항구적 토대 마련('12.2월 예정)
 - * '10.10월 한국과 동남아 문화예술인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문화예술교류를 위하여 제1회 「한-아세안 문화예술 포럼」 개최
 - 한-베트남 수교20주년('12년) 기념 등 계기별 문화행사 등을 활용하여 문화교류 활성화 및 우호 증진
 - * 한국주간 문화행사, 태권도 시범단 파견, 영화제, 전시회 및 관광 홍보 행사 등 추진
 -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및 실내악단 국내외 공연을 통한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
 -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창단된 오케스트라 캄보디아 공연('12.11월 예정) 및 아시아전통실내악단 창단('12.8월 예정)

라. 보건의료

- [MOU 체결]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한국의료 인지도가 높은 국가**와 보건의료 협력 MOU체결을 통한 진출기반 마련
 - * '10년 동남아지역 환자는 3,221명(전체 81,789명의 3.9% 수준), '09년 1,386명 대비 132.4% 증가
 - ** 인니(283명), 베트남(921명), 말련(258명), 필리핀(957명) 등

- MOU를 토대로 의료분야 첨단 IT 솔루션,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관 및 인력 진출 등 연관 산업 진출 견인

- [Medical Korea 홍보] 정례적 학술교류회, 외국의료인 연수, 나눔 의료 등을 통한 현지 의료여건 개선 및 한국의료 긍정적 이미지 구축
 - 한류를 활용한 지역별 특화 의료상품(K-medicine) 중점 홍보
 -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초청 연수 확대*
 - * 이종욱 펠로우쉽('11년 3.3억 → '12년 37억)

마. 기상

- ① [기상업무 현대화 지원] 한-베트남 개발·과학기술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베트남의 기상업무 현대화 지원 강화
 - * 태풍진로·규모 예측 시스템 개발 및 전문가 초청 연수('10~'11)
 - ** 베트남 기상청의 중앙 및 지방 예보관 초청 연수('10~'12)
- 베트남 등에 천리안위성 기상자료 수신·활용 지원('12~)
 - * 우리나라 최초의 통신해양기상 위성 자료를 수신·처리·분석하여 동남아 지역의 기상재해 대응 및 예보 역량 제고
- ② [기상·재해 시스템 구축 지원] 한-ASEAN 기상협력('05)에 따라 동남아 개도국의 기상·기후자료 복원 수행('12~'16)
 - 베트남, 필리핀 등에 재해감시 및 재해방지 시스템 구축
 - * 베트남: 홍수감시시스템 등 기상재해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12~'15)
 - 필리핀: 재해방지 조기경보 시스템구축 제2차 사업 추진('12)

V. 향후 추진 계획

- **[관련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장관급 논의를 활성화하여 경제협력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도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함
 - 民官 관련기관의 실무자간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동남아 관련 정보, 동남아와의 협의 채널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
 - 특히, 현지 진출 기업 및 관계기관의 수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이를 반영·개선함으로써 **민관협력**의 질적 확대를 도모
- **[이행상황 점검]** 同전략의 세부 실천과제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 성과가 미흡한 사항이나, 보완 필요사항 등은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차기 전략 수정시 반영
- **[향후 계획]**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및 정책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고, 필요시 신규 중장기 전략 마련
 - 同전략의 기본 틀에 따라 고위급 협의 및 정부간 협의의제를 발굴·논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도모

참고

동남아 경제현황 및 한-동남아 경제협력 현황

(백만달러)

	경제현황		경제협력 현황						
	GDP (십억\$)	1인당 GDP (\$)	교역 ('10)			투자 ('11.6월 누적)	건설 수주 ('11.11월 누적)	EDCF ('11.11월 누적)	무상 원조 ('10 누적)
			수출	수입	수지				
브루나이	12.4	29,675	65	1,522	-1,456	13	498	-	0.02
캄보디아	11.6	814	333	43	290	4,035	1,055	341	43.9
인도네시아	706.8	2,974	8,897	13,986	-5,089	9,332	10,538	546	49.7
라오스	6.5	1,004	112	20	92	637	1,029	132	32.8
말레이시아	238.0	8,423	6,115	9,530	-3,416	5,000	9,554	-	0.2
미얀마	45.4	742	479	160	319	4,129	1,534	85	15.3
필리핀	199.6	2,123	5,838	3,488	2,350	2,752	7,506	369	42.4
싱가포르	222.7	43,117	15,244	7,850	7,395	4,884	23,959	-	0.009
태국	318.9	4,992	6,460	4,169	2,291	2,329	9,969	-	5.1
베트남	103.6	1,174	9,652	3,331	6,321	14,110	15,615	1,317	68.1
ASEAN 합계(A)	1,865.4		53,195	44,100	9,095	47,220	65,642	2,791	257.5